근대 5종 불모지서 전국 최강 조련

스포츠 포커스

체전 2연패 도전 광주도시공사 강 정 구 감독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국민생활체육관내 근대 5종 연습장에서 강정구 감독이 선수들에게 육상과 사격(사진 위)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국민생활체육관내 근대5종 경기연맹.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실전이다 생각하고 쏘라카이"

억센 경상도 사투리가 선수들을 채근한다. 주인공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소속 근대5종 강정구(43) 감독.

사대에 선 광주 도시공사소속 근대5종 대표선수들은 감독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한치의 빈틈을 보일 수가 없다.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을 지도철학으로 삼고 있는 강 감독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강 감독은 훈련시간을 어기거나 꾀를 피우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훈련은 집중력을 발휘해 성과를 거둬야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요령 피울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

이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으로 강 감독은 올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근대5종에서 단체 1위의 성적을 광주에 선물했다.

6년전 광주 온 '부산 사나이'

지난 2002년 개인1위, 단체 1위의 눈부신 성적을 거둔지 5년만의 성과다.

'부산사나이' 강정구가 광주시체육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1년. 부산 송도초, 송도중, 부산체육고등학교, 부산경성대를 졸업해 광주와는 인연이 전혀 없는 이 사나이는 경상북도 경북도청에서 선수생활을 마치고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다. 전혀 연고가 없는 곳, 특히 지역감정 운운하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광주에서 팀을 맡는 다는 것이 모험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강 감독은 좋은 선수들을 키워야 겠다는 일념 하나로 광주체육회 소속 근대5종팀을 맡게 됐고, 성실과 끈기로 근대5종 불모지였던 광주를 전국최강의 전력으로 키워놨다.

특히 지난 2005년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 광주시 도시공사 소속으로 팀이 바뀌면서 선수들에 대한 대우와 팀 운영이 안정이 돼 이제 최강자리를 지키는 일만 남게 됐다.

"처음 광주에 왔을 때는 진짜 갑갑했지요. 말투가 워낙 강해 누가 봐도 경상도에 온 줄 아는데 사람 사귀는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강 감독은 그 당시를 회상하며 웃음지었다.

전국체전 단체 1위 선물

중학교 1학년때부터 수영선수로 활약했던 강 감독은 대학2학년때인 지난 1985년 친구를 따라 근대5종 경기를 보러 갔다가 상무 감독의 눈에 띄어 근대5종이란 낯선 경기에 입문하게 된다.

사격(10m 공기권총), 펜싱(에뻬), 수영(200m), 육상(3㎞), 승마(장애물) 5종목을 치러야 하는 경기에 기초체력을 다진 수영과 육상은 기본.

수영선수로 이름을 알리고 있던 강 감독은 입문 2년만인 1987년 전국 근대5종 경기 단체 1위를 기록하며 국가대표에 뽑혀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다. 88년에는 회장배 개인 1위, 단체 1위와 전국 근대5종 대회 개인1위, 단체 1위를 하며 전국 최강자로 군림했다. 이후 91~92년 국가대표, 1995년에는 전국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 모두 우승, 전관왕 신화를 작성하는 등 화려한 선수생활을 보냈다.

선수 시절엔 전관왕 신화도

강 감독은 "그땐 오로지 운동밖에 몰랐지요. 다른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오버페이스를 해 올림픽 출전을 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남아있습니다"며 못다 이룬 올림픽 메달의 꿈에 대한 회한을 드러냈다.

하지만 강감독의 올림픽 메달 꿈은 제자인 이춘헌(28·광주도시공사)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가대표이자 전국최강의 전력을 갖춘 이춘헌이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기 때문.

이제 광주는 강 감독에게 제2의 고향이 됐다. 말투만 부산사투리가 묻어나지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은 광주사람이다.

모든것이 잘 풀려나간 것 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 광주에 처음 온 2001년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 1위, 2002년 개인1위, 단체1위의 성적을 거둬 광주체육회를 놀라게 했던 그에게 2003년~2005년까지는 암흑기 였다.

선수 수급을 광주체육고에 만 의존하고 있는데다 따로 스카우트 비용이 없어 우수 선수들을 확보할 수 없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좋은 성적내는 비결은 믿음

강감독은 "그땐 진짜 이도저도 따 때려 쳐뿔고 가고 싶었지요. 하지만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의지를 다지고 눌러 앉았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선수에 대한 믿음과 교감'을 지도 철학으로 삼고 있는 강감독은 그의 애제자인 김상완이 경기도로 옮기고 싶다고 했을 때도 잡지 않았다. "여러 지도자를 만나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고 말했고 웃으며 보내줬다. 하지만 김상완은 경기도로 옮긴 후 성적이 나지 않아 결국 다시 강 감독의 품으로 돌아왔다.

"근대5종은 경기장을 계속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과 훈련스케줄, 방법 등을 같이 논의하고 되도록 선수들의 요구를 들어줄 려고 합니다."라고 강 감독이 말하자 선수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 눈치다.

물론 자율과 대화를 중시하지만 새벽 5시30분에 선수들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는 그의 모습은 '저승사자'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솔선수범하는 그의 노력은 광주 도시공사 근대5종 팀을 타시도 선수들이 오고 싶어 하는 팀으로 바꿔 놓았다.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곳,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염주동 체육관 인근에 승마장, 수영장, 사격장이 모두 갖춰진 것도 큰 몫을 했다.

지도자로 올림픽 메달 꿈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들의 체력을 강하게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음을 나눠 교감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새벽 5시30분부터 저녁까지 5개 종목을 쉬지 않고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는 강 감독의 전국체육대회 2연패를 향한 꿈이 활짝 날개를 펼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근대 5종 경기란

■사격 (10m 공기소총)

■펜싱 (에뻬)

■수영 (자유형 200m)

■육상 (3㎞)

■승마 (장애물)